

특별취재

김종규 부안군수, 중앙부처 방문 지역현안 지원 건의

김종규 부안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현안을 원활히 추진 하려고 발품땀을 흘리고 있다. 12일 김종규 군수는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종규 군수는 2017년도 국가예산안 편성 전인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5차례 이상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 부처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고 기획재정부로 제출 되는 시기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김종규 군수는 해양수산부를 찾아 제3회 새만금 국제요트 크루징대회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 관광가관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줄포만 습지보호구역 공유수면 사유지 매입 등도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를 찾아 부안도시 침수에 방 하수도 증점관리 사업, 진서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수생자연미당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종규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신 기천·윤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민안전처를 찾아 부안읍 풍수해위험생환권 안심정비사업 및 선운소하천·봉리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부안=이복수 기자



부안군 귀농귀촌교육 수료식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귀농귀촌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귀농귀촌교육은 귀농인과 귀농귀촌 희망자 등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7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88% 이상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당초 농업기술센터는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귀농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 54명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3월 2일부터 3개월 간 19 회 총 148시간에 걸쳐 귀농귀촌 정책방향, 농업기초기술 교육, 작물별 영농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전략,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장 방문, 농업의 6차 산업화 이해, 선도농가 견학 등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부안읍 최철수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농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귀농귀촌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긴 교육시간이 었고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수료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부안=이복수 기자

김제진봉면 농업관계자

원에특작과학원 등 방문

김제시 진봉면(면장 이승엽)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 관련 3개 단체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새만금 동서2축 도로로 선진지 견학을 나섰다.

이번 견학은 진봉 농업인이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용작물, 버섯 등 원예 및 특용작물에 대한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보를 얻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진봉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진봉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또한 현재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이 필요함을 체감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12일부터 9월까지 전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본격적인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벌였던 김제피성 발굴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백제부흥운동 학술조사 본격화

김제성산공원에서 개토제... 백제 왕자 부여풍의 흔적 찾기 돌입

백제 패망 후 나라를 되찾고자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벌였던 김제피성(김제성산)의 흔적을 밝히는 학술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따라 성산에 있던 토지신에게 제를 올리는 개토제가 12일 김제성산공원에서 열렸다.

성산공원은 성산을 중심으로 국가사적자인 김제 관아와 향교, 용암서원과 벽성사원, 그리고 김제시청과 김제문화예술회관 등이 위치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김제시민들로부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이곳은 김제의 주성(主城)으로서 백제시대로부터 중요한 성곽이었다는 문헌자료와 백제패망 후 왜곡에 가있던 백제의 왕자 부

여풍을 중심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벌였던 백제부흥운동 당시 임시수 도로서 기능을 하겠다는 추정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발굴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 진적이 없었다.

이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이에 대한 발굴조사비용 국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12일부터 9월까지 전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백제 부흥운동의 근거지인 주류성(부안 우금산성)은 오직 전장을 막아낼 장소일 뿐"이라며 김제의 피성은 "삼한중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며, 의식의 근원"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향쟁의 근거지를 옮긴바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백제 부흥운동이 백제 왕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백제사의 종점을 백제 부흥운동이 막을 내린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간 아슬이 많았던 주류성과 피성의 위치가 부안과 김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권의 여러 유적지와 함께 김제의 백제시대 유적 또한 추가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공원)으로 천도 하게 된 이유가 "주류성(부안 우금산성)은 오직 전장을 막아낼 장소일 뿐"이라며 김제의 피성은 "삼한중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며, 의식의 근원"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향쟁의 근거지를 옮긴바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백제 부흥운동이 백제 왕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백제사의 종점을 백제 부흥운동이 막을 내린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간 아슬이 많았던 주류성과 피성의 위치가 부안과 김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권의 여러 유적지와 함께 김제의 백제시대 유적 또한 추가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제 부흥운동 당시 백제의 왕자 부여풍이 주류성에서 피성(성

정읍시농기센터, 드라이푸드 가공사업장 준공

2억6300만원 투입 장비 5종 갖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시가동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에 농산물을 이용한 드라이푸드 가공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농업특성화 드라이푸드 가공사업장(이하 드라이푸드 사업장)을 건립, 12일 준공식을 가졌다. 드라이푸드사업장은 '2015년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드라이푸드 육성사업 지원으로 건립됐다. 총사업비 2억6천300만원을 투입해 가공 및 체형시설(275.4㎡)을 신축했고 말랭이와 건나물 등 다양한 드라이푸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가공장비 5종을 갖췄다. 드라이푸드사업장은 드라이푸드 가공 제품의 균일한 품질 유지와 계절잉여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위한 공동시설 확보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술센터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드라이푸드 가공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는 36가구로 이곳에서는 감 말랭이부터 시래기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장 준공으로 농가의 원활한 출하는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의 다양하고 신선한 가공상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12일 '정부3.0 국민디자인단' 13명을 위촉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지역 활성화 연구소장과 관련 과제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지역 주민, 지역공동체육성과 담당자, 복지여성과 노인복지 담당 등 정책공급자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하게 될 이들은 자발적인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을 통해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읍시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 방법들도 찾게 된다. 시에서 발굴한 국민디자인 추진과제는 정읍시 청년장주 인프라구축과 생애맞춤형 고령친화도시 구축이다. 시는 청년 중심이 되어 지역에 정착, 생활하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과

정읍시,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정읍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12일 김생기 시장 주재로 국·소장을 비롯한 전제 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150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진행상황을 사업별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에서 중점 건의하고 있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은 '미생물 융복합 전복과학기술원 건립(총사업비 41.88억원, 내년도 요구액 60억원) 등 150개 사업에 3천789억원이다. 이중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사업은 128개 사업에 3천366억원이고,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22개 사업 453억원이다.

김 시장은 보고회에서 "5월 말이면 중앙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므로 부처 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논리를 설명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내장산과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등 문화관광분야의 적극적인 국책사업 발굴과 새만금 및 동북권 상수도권과 연계하는 사업 발굴, 농업소득기반구축 국책사업 발굴 추진 등에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9년에 1천844억원이던 국가예산이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4천363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4천500억원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민디자인 추진과제는 정읍시 청년장주 인프라구축과 생애맞춤형 고령친화도시 구축이다

정읍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위촉

정읍시는 지난 12일 '정부3.0 국민디자인단' 13명을 위촉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지역 활성화 연구소장과 관련 과제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지역 주민, 지역공동체육성과 담당자, 복지여성과 노인복지 담당 등 정책공급자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하게 될 이들은 자발적인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을 통해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읍시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 방법들도 찾게 된다. 시에서 발굴한 국민디자인 추진과제는 정읍시 청년장주 인프라구축과 생애맞춤형 고령친화도시 구축이다. 시는 청년 중심이 되어 지역에 정착, 생활하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과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증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사에서 김생기 시장은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수요자와 시민 중심의 정부3.0을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국민디자인단은 국민 관심도가 높고 현정수요를 반영한 국민참여형 과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정책수립과 집행, 실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해 정부3.0 정책 서비스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logos for '부안오리생주' and '부안강산생주'.